

NK Defector 1

이룡화 선생님

내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말 하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말해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지 체험하였던 사실들을 실례 들어가면서 이야기 하겠다.

Many things cross my mind when I hear ab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ut I'm not sure how to put it into words to make you feel the way I felt and to convey the pain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realistic as possible. So, I will just talk about what I witnessed and personally experienced in North Korea.

먼저 내가 2010년 1월에 함경북도의 어느 한 보위부에 감금되어 있을 때 북한 보위부들의 감방에 있는 수감자들을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Let me begin by talking about the infringement of prisoners' rights based on my time at North 함경 state security agency in January 2010.

세계적으로 새해 첫날은 모두 뜻깊고 의미가 있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보위부 감방에서 죄 아닌 죄로 하여 새해 첫날부터 심문을 받아야 했었고 내 때문에 명절날에도 나와서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따귀를 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담당 취급자(보위지도원)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국기도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면서 나를 참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구타하였다.

In anywhere around the world, people hope to spend a meaningful New Year's Day, but I was interrogated at the security agency on the first day of 2010. The supervisor started the interrogation by slapping me in the face because I made him work on a holiday, New Year's Day. He forced me to admit that I had intention to go South Korea (which was not true) and I was beaten ruthlessly with a club made of oak tree.

그리고 내가 인정을 안 하자 감방에 들여보내서 감방을 지키는 간수(북한식으로는 계호원) 들을 시켜서 잠을 못자게 하고 내가 얼어든 몸을 유지 하느라 조금 움직이였다고 하여 자기는 개털외투를 입고 난로불 앞에 마주 앉아 서도 춥다고 하면서 나의 웃옷을 벗기우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하였고, 춥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옆드렸다 앉았다하는 운동을 수없이 반복시켜 맥을 뽑게 한 다음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것이였다

Since I refused to admit being guilty, the supervisor threw me into a prison and ordered the prison officers to keep eyes on me so that I could not fall in sleep the whole night. In jail, I was shivering cold. The prison

officers were outside sitting around a fire wearing thick winter coats. They said they were still cold and commanded me to take off my clothes. I told them I was cold, but then they made me sit down and stand up for over and over again until I was completely exhausted. Then, they forced me to admit being guilty again.\

그래도 내가 완강히 거부를 하자 다음은 고문실로 데리고 가서 사정없이 구타를 하였다 나는 그때 맞은 어혈로 머리에 지금도 상처가 생생하고 구두발에 채워 부러진 갈비뼈는 훗날 감방에서 능막염을 앓게되었으며 지금도 육체적 부담이 클때에는 그부위가 아파난다.

I refused again to admit being guilty, so they brought me to a torture room and beat me again. They kicked me with their hard shoes, breaking my ribs broken and my jail time to suffer from a blood clot in my brain. I still have a scar remaining from that incident. And every time I feel tired my ribs ache and remind me of that horrible time.

북한의 보위부는 감방안에서 먹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죽은 사람들을 끌어내다 버리면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처럼 심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시체가 되어 나간다고 협박하면서 죄를 인정 하라고 하였다.

In th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cy, policemen were throwing dead people away who died from cold weather and malnutrition without informing their family. Pointing to the dead bodies, the supervisor threatened prisoners by saying “If you do not admit your crimes, you will leave this place like the dead ones”

그렇게 15일간이라는 짧고도 긴 나날들을 보위부 감방인지 지옥에서 보내고 함경북도 집결소 에 이관되어 갔다.

After 15 days at the North 함경 state security agency jail, I was transferred to a north 함경 state holding camp.

2008년과 2009년 2010년 연 삼년동안 그 집결소 생활을 하였는데 거기서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강제 로동에 시달리다가 견디어 내지 못하고 죽은 애어린 청년들을 이손으로 물어주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며 내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까지 다가섰던 몸이다.

From 2008 to 2010, I was in a holding camp; I suffered from malnutrition and forced labor. I buried 14 dead young men and teenagers at the holding camp and I too, could be also buried by someone.

그러하기에 나는 이 자리에 나오면 북에 있는 나의 형제 친척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 북한이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희생과 수많은 수감자들의 인권이 유린 당 하고 있을 것을 생각 하면 잠이 오지 않기에 가족과 형제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Even today, I know that my brothers and relatives who remain in the DPRK are still being abused. I cannot sleep easily knowing that there will be more victims and prisoners whose rights are violated if nothing is done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So, I decided to come here.

그들은 살길 찾아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죄 아닌 죄로 꿈과 희망을 꽃피우면서 배워야 할 그 나이에 자기를 잘 못 낳은 엄마를 원망하면서 눈도 감지 못 한 채 육체만 아니라 꿈 과 희망까지도 묻혀야했다.

Is going to China to find food a sin deserving of death? Young men and women who should enjoy their life and follow their dreams were dead and buried.

나는 지금 북한이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더 첨부 하고 싶다.

According to the 2009 UPR report of the DPRK, it claims that the DPRK respects every individual's human rights and let people express freely. But this is not true.

북한의 변호사들은 피고의 죄를 변호 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조 몇 항에 의 하여 단련 형 몇 년을 받아야 응당하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여준다.

Lawyers in North Korea do not defend the defendant; they determine the sentence the defendant deserv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DPRK like a judge.

웃지도 울지도 못할 비극이라 말도 못하겠다. 말로 만 인권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서도 인권을 변호하여주는 변호사가 이정도 이니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다음 재판이 끝난 다음 상소기일이 십여 일간이 있는데 형식에 불과 하다.감방을 지키는 간수들은 재판받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 또 상소를 해봤자 형기가 오히려 두 배가 늘어나는 판결이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감방수 들은 이제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his is a tragedy. Lawyers who should consider human rights are unjust, so there is no need to explain how's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fter trial, a few days are

given for an appeal, but only as a mere formality.

If defendant tries to appeal, the prison keepers do not allow it. And even if defendant succeed on appealing, it results double length of its sentence. Therefore, inmates accept this situation just as their destiny.

군사복무를 십여년간 하고도 제대되어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 하는것이 이십대 청년들의 운명인것이다,

In the DPRK, if people are born on a farm, it is one's destiny to live on the farm until one dies, and one still has to do farm work even after finishing ten years of military service.
하고싶은 말은 많아도 시간상 관계로 이만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향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tons of words to say, but I will finish my words now.

Once again, I want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the country representatives and those interested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nk you.